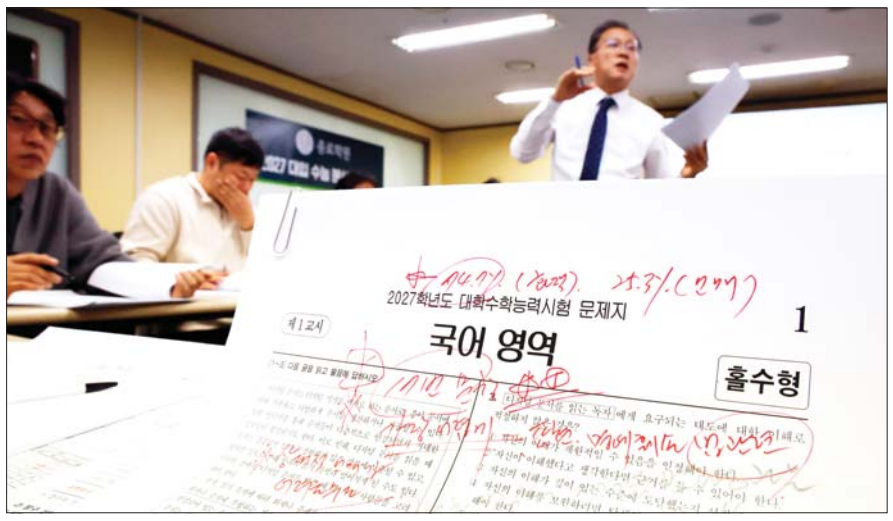
국어 작년보다 '쉬웠다'… 수학은 복잡한 계산에 '시간 부담'

2027 수능

국어, 지문 정보량 줄여 독해 수월
'언어와 매체' 상대적으로 어려워

수학, 작년 수준 또는 다소 까다로워
'확률과 통계' 복잡한 계산에 부담
공통·선택과목 고난도 문항으로 변별



19일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에서 강사진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는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과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국어는 전반적인 독해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언어와 매체 등 선택과목과 추론·적용 문항이 관건으로 꼽혔다.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주요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한 가운데, 복잡한 계산으로 시간 관리가 중요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국어 영역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은 EBS 현장교사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종로학원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고 올해 6월·9월 모의평가보다도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국어, 언어와 매체 '상대적' 부담

EBS 현장교사단 분석에 따르면,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 지문에 담긴 정보량과 복잡성을 줄이고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해 독해 부담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다만 여러 정보를 종합해 논리적으로 연결하거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종로학원도 지난해 수능보다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분석했다. 문학과 독서 모두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선택과목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특히 시험 초반에 선택과목을 먼저 푸는 수험생이 많다는 점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시작부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화법과 작문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수능 국어 선택과목 접수 비율은 언어와 매체가 25.3%로 지난해 31.6%보다 낮아진 반면, 화법과 작문은 74.7%로 지난해 68.4%보다 높아졌다.

주요 변별 문항으로는 독서 영역의 17번이 꼽혔다. 법률 관련 지문을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표현의 차이, 법적 책임 등을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해야 하는 문항이다. 종로학원은 독서 8번과 언어와 매체 37번도 어려운 문항으로 지목했다. EBS 현장교사단은 문학 영역 30번을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평가했다.

EBS 연계 체감도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어 영역의 EBS 연계율은 53.3%(45문항 중 24문항)다. 독서는 EBS 교재에 수록된 제재와 핵심 개념을 활용했고, 문학은 고전소설과 고전시가 대부분이 교재 수록 부분과 일치했다. 종로학원도 EBS 연계 체감도가 높아 수험생들의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학, 작년 수준… 계산문항 어려워

수학 영역은 난도 평가가 엇갈렸다. EBS 현장교사단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선택과목은 지난해와 유사한 난도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중위권을 겨냥한 중난도 문항부터 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까지 고르게 배치해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에반해 종로학원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고, 올해 6월·9월 모의평가보다도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출제 유형은 지난해 수능과 모의평가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이 있어 시간 부족을 느낀 수험생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선택과목별 난도에 대한 의견도 상이했다. EBS 현장교사단은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간 난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각 과목의 특성에 맞춰 문항을 구성했다고 봤다. 특정 과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출제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반면 종로학원은 미적분과 기하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확률과 통계는 계산 과정이 복잡해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의 체감 부담이 다른 과목보다 컸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변별력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일부 고난도 문항을 중심으로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공통과목 21·22번을 상위권 변별 문항으로 꼽았고, 종로학원 역시 공통과목 14·15·21·22번을 어려운 문항으로 지목했다. 선택과목에서는 EBS 현장교사단이 각 과목 30번을, 종로학원은 확률과 통계 29번과 미적분 30번, 기하 28·30번 등을 주요 문항으로 평가했다.

수학 영역의 EBS 연계율은 50%(30문항 중 15문항)다. EBS 현장교사단은 사교육에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 훈련한 학생에게 특별히 유리한 문항은 없었다며, 교육과정의 개념을 고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학습이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약대도 의대처럼 평가·인증 '의무화'

교육부, 20일부터 개정령 시행
전국 37개 약대에 동일 기준 적용
위반 시 모집정지·학과 폐지 처분

앞으로 약대를 운영하는 대학도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 마찬가지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학정원의 최대 10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37개 약학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다른 의료 교육과정과 같은 평가·인증 절차를 적용받는다. 약학 과정 운영을 시작하려는 대학은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인증 대학은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년 학생 모집요강에도 이 내용을 담아야 한다.

위반 시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때는 해당 전공의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2차 위반 때는 전공학과나 전문대학원을 폐지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서울교육청, 교원 호봉·채용 업무 자동화

디지털 기반 행정지원 확대
호봉획정 프로그램 기능 개선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호봉 계산과 채용 절차 등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수작업 행정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통합지원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행정지원 체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주도로 개발한 '교원 호봉획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1개 교육지원청의 호봉 업무 담당자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오류를 점검하고, 지원청 관내 학교의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새 프로그램은 나이스(NEIS) 인사기록 파일을 등록하면 경력 입력부터 호봉 산정까지 자동으로 처리한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경력 산입 등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고, 학력과 경력 기간이 겹치면 알림을 제공하는 등 총 9개 기능을 개선했다.

채용에도 자동화를 적용한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개발한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바로채움ON봇'은 채용 공고 작성과 게시부터 응시원서 정리, 심사표 집계, 합격자 안내 문자 발송까지 6단계 업무를 자동 처리한다. 서울교육일자리포털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을 연동해 운영한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위한 모바일 웹 서비스도 마련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웰컴온(WelcomeON)'은 숙소 생활과 외국인등록, 학교 근무, 주변 시설 안내, 생활 한국어, 긴급 연락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생활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어 일상 표현 84개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김수정 기자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 열풍… 직업교육 협력 확대

교육부, 현지 방문단과 협력 논의
한국어반 직업학교 25곳으로 늘어
현지 정부, 교원 초청비 전액 부담

우즈베키스탄 직업학교가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현지 정부가 한국어교원을 직접 초청해 급여와 체류 비용 등을 부담하고, 한국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참고한 직업교육 협력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한국형 직업교육 모델 도입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청 관계자들이 오는 21일까지 방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문단은 항공·소프트웨어(SW)·자동화 설비·전자 및 기계 분야 직업계고 4곳을 찾아 교육과정과 실습실 운영 등을 참관한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도 만나 직업교육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청 방문. /교육부

한국어교육도 직업학교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청은 직업학교 학생들의 해외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한국어교원 초청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타슈켄트와 부하라, 사마르칸트 등 5개 지역에 한국어교원 6명이 파견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원 급여와 왕복 항공료, 숙소, 보험 등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곳이다. 이 가운데 직업학교는 25곳으로, 지난해 3곳에서 크게 늘었다.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청은 내년 한국어교원 초청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청소년 시선으로 그리는 교육청 신청사

서울교육청, 20일 프로젝트 발표회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신청사를 재해석하고, 실제 공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서울청소년, 교육청 신청사를 꿈꾸다' 프로젝트 발표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신청사 공간을 탐색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고등학생 60명이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신청사 1~3층의 주요 공간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제안에는 신청사 1층과 지하 1층을 잇는 커뮤니티 계단을 문화·소통 공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담겼다. 계단에 피아노를 설치하고 전시와 공연을 열거나 소원을 적어 걸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회에서 각 팀은 공간 디자인 구상을 설명한다.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 3층 컨퍼런스룸에서 프로젝트 과정과 성과를 공유한다.

/김수정 기자